

2/9(수) 민수기 8-12장 행군 시작, 원망도 시작!

예배와 헌신에는 지파 간의 우위가 따로 없습니다.
열두지파는 동일한 양과 수로 헌물을 바쳤고(7장).
성경은 이에 대해 지파별로 동일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.
그들의 헌신은 <이하 동문>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

열두지파는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(롬12:4-5).
레위인도 제사장도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(8:26).
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으며,
선두나 지휘권을 두고 다툼 이유도 없습니다.
하나님이 진두지휘 하시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.

“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 하고
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더라(9:23).”
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시며 그들이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.
구름과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습니다(10:33-36).

그러나 진군과 함께 <원망>이 시작되었습니다(11:11,4,14:22).
전에는 물과 식량으로 인해 불평했지만(출15:22-26, 16장, 17:1-7),
이제는 근사한 식재료를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(민11:5).
모세도 백성들에 지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(11:12-15).
이전에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지만(15:20-21),
이제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불평합니다(12장).

그들의 <원망>시리즈는 주제별로 계속됩니다.
하나님은 이 백성과 행군에 대해 대대적인 결단을 내리십니다.

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?

- ❶ 나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붙좃아 가고 있습니까?
- ❷ 나는 전보다 성숙해졌습니까, 더 까다로운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?

* 붙좃다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.

시작기도 + 통독 민수기 8-12장